

왕유의 자연미와 망천별업의 조경사적 의의

박희성* · 조정송**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The Meaning of Wangwei's Natural Beauty and His Garden, Wangchuan Villa

Park, Hee-Soung* · Cho, Jung-So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Beginning in the Wei-Chin and Liu Ch'ao era(AD. 220-589), an awareness of natural beauty emerged as the major interest of scholars which created such a social atmosphere that served as the foundation of prosperous Chinese art. During the T'ang period, the desire to achieve natural beauty began to dominate every field of art including gardening. This study covers the T'ang period when scholars began to be conscious of aesthetic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natural beauty as interpreted by Wangwei, an artist representative of the period, and of Wangchuan Villa in relation to aspects of garden theory.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Wangwei's anthology, landscape painting describing Wangchuan Villa, and historical records related to the Villa.

The summary of conclus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 1) Wangwei's concept of natural beauty is a combination of objective natural beauty and pastoral beauty, which stresses the essential beauty of nature. Moreover, he considered nature as a religious Utopia.
- 2) Wangchuan Villa, where Wangwei stayed until his death, was a place of seclusion representing his idea of natural beauty. There, he was able to realize the paradise of Buddhism full of zen aspirations.
- 3) From the perspective of garden theory, Wangchuan Villa can be classified as a suburb villa in terms of location, as a landscape garden in terms of elements, and as a villa based on a typical private land system in terms of forms. In addition, it may be considered as a garden that laid the foundation to realize a field of non-visible image and non-visible landscape, which is fundamental element of scholarly garden design.

Key Words : Wangwei, Wangchuan Villa, Wangwei's Natural Beauty, The Meaning of Garden, Zen Aspiration, Seclusion

I. 서론

위진남북조 이래 중국의 문인들은 예술적 심미주의를 보다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예활동의 산물을 낳으면서 중국문화의 커다란 틀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예술사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게 된 데에는 자연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조경사적 측면에 있어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연미에 대한 관심은 주로 지배계층의 사상적 변화에 기인하는데, 경학(經學)이 우세한 문화적 기반이 되었던 이전 시대의 예술이 주로 인물을 품평하고 묘사하였던데 반하여,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부터는 사상적으로는 유가가 노장 사상과 불교사상을 흡수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지배관료들에게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할 수 있는 기회가 유행하게 되면서 시나 그림과 같은 문예활동이 그 영역을 자연으로까지 확대, 발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진 및 남북조의 일부 예술가들은 점차 산천의 미에 대해 감정적으로 공명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표현하고자 갈망하였으며 곧 이들의 노력이 현실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사령운(謝靈運)²⁾의 산수시와 종병(宗炳)³⁾이 남긴 [화산수서(畫山水序)]는 산수시와 산수화를 문예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예견하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산수를 주제로 한 문예작품들은 당대(唐代)의 여러 문인들에 의해 더욱더 발전된 예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문인들의 자연미에 대한 자각은 그들의 풍부한 예술적 의취(意趣)와 맞물려 원림조영에 있어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문인정원은 그네들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심미 의식이 반영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특히 당대의 문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조원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그들의 시문(詩文)과 회화는 원림을 내용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변모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즉, 시의 정감과 그림의 뜻(意)이 원림에 풍부하게 부여되면서 사의(寫意) 산수원(山水園), 혹은 문인(文人) 산수원(山水園)이 출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것은 원림 발전에 새로운 단계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인 원림은 그 소유자(혹은 작성자)의 문예적 취향 덕분에 형식적인 구성요소들에서는 볼 수 없

는 내적 의미들이 많이 함의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대부분 소유자의 사상이나 문예작품 등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결국 소유자의 내면세계를 통한 원림의 해석은 자칫 표면적으로만 보여질 수 있는 문인 원림의 의취를 보다 풍요롭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이는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원림의 해석에 더욱더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왕유의 망천별업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 대상은 이 별업이 초기 문인 원림의 사례 가운데 하나이고 그 소유자가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인 왕유(王維)라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왕유가 살았던 사회적 배경과 함께 그의 생애를 조망하고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자연미를 살펴보았다. 왕유의 자연미 고찰은 그가 말년까지 머물렀던 망천별업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바탕으로 삼았으며 그의 시문집 [망천집(輞川集)]과 망천별업을 묘사한 망천도(輞川圖) 등과 같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망천별업이 가지는 조경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II. 왕유의 생애와 사회적 배경

1. 사회적 배경

당대(唐代)는 위진남북조라는 혼란기 이후 중국에서 전례 없는 문화적 부흥기를 맞이하였던 시기이다. 특히, 왕유가 살았던 시대는 현종(玄宗)의 집권(712년-756년)으로 강력한 왕권 정치 속에서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황금시기를 이루었다가 안록산(安祿山)의 난(亂)을 기점으로 사회적 정황이 크게 변모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다(정창열 외, 1984: 21).

한편, 당대가 이전의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문예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원림 발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과거제도의 시행'과 '장원(莊園)의 유행'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수 있다.

1) 과거제도의 유행

수당시기(7~10세기)에 유행했던 과거제도는 우선

중국의 지배층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과거제도는 양한(兩漢)시대를 주도하였던 유학의 독보적인 지위를 하락시키고 관리의 선발 기준도 경학(經學)보다는 문학 부문을 보다 중요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당대의 문예부흥에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金 講, 1990: 53). 그리하여 과거제도의 시행은 귀족에게만 한정되었던 관직의 자리를 서민에게까지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인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예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과거시험에 관건이 되는 문장력은 이전까지 유행하였던 군공(軍功)이나 변새(邊塞)에 대한 동경 대신 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워지고 기지가 넘치는 대구(對句)의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다양한 스타일과 개인의 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개인적 성향을 자각하게 하게하는 원동력이 된 세속지주세력, 즉 비문벌사족(非門閥士族)인 사대부들에게 그들의 처세에 대한 내재적 모순을 낳게 하는 원인 또한 제공하였다.

전통 유가사상의 개념인 “널리 치국평천하의 이념을 실현할(兼濟天下)” 꿈을 희망하였던 그들에게 현실은 언제나 이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권다툼, 상하간의 알력 등의 관계에 연루되어 좌천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홀로 그 자신만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추구하여 나가는(獨善其身)” 길을 택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도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비록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官界)에 열의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그곳에서 물러서거나 도피해야만 하는 모순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문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 야심과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과 갈등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이 자리잡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李澤厚, 1981: 364-380).

이처럼 과거제도는 구품중정제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의 내면세계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당대의 문예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2) 장원제의 유행

시대적 배경으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장원(莊園)의 유행’이다. 사적(私的) 대토지 소유방식이라 할 수 있

는 장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정확히 말해 송대(宋代)이지만, 가려번(加藜纂)이 내린 정의에서처럼, “장원의 기원은 한대(漢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원림의 초기형태로, 이것은 공식적인 토지제도로 인정되기 전부터 문벌들 사이에서 큰 유행이 되어왔던 토지소유 방식”(신성갑, 1989: 15)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장원(莊園)은 장(莊), 원(園), 서(墅), 별업(別業), 별서(別墅) 등으로 불렸으며 이것은 주로 왕공(王公)이나 귀족의 별장(別莊)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딸린 전원(田園, 莊田)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띄게 되는 것은 바로 당대 이후의 일이었다.“ 당대부터 경영이 확대되기 시작한 장원은 이전의 귀족 소유의 장원과 성격상 차이가 있었다. 이른바 신흥지주층에 의한 향촌적 차원에서의 대토지 소유가 그것으로, 장원의 유행은 결국 산과 계곡을 무한히 점령, 탈취하고 위법으로 매매, 백성들을 강제로 소작시키는 극단적인 상황을 낳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신성갑, 1989: 15-16). 하지만 지배계급의 장원 소유는 소유자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였으며 이는 곧 중국의 원림, 특히 사가원림(私家園林)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당대는 유 불 도가 융합된 사상적 풍요로움과 함께 과거제도로 인한 개인의 내면정서의 발달뿐만 아니라 내면세계와 현실세계의 모순이 낳은 풍부한 감정과 은일이라는 처세방식이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함으로써 예술의 대상을 인간에서 자연으로 눈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 ‘장원제’의 유행은 산수시, 산수화와 같은 예술작품에 하나의 소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림이 보다 발전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왕유의 생애

왕유는 당의 중종(中宗) 장안원년(長安元年, 701년)에 태어나서 숙종(肅宗) 상원(上元)2년(761년)까지 61세를 살았다. 왕유의 자(字)는 마훤(摩詰)이며 태원부(太原府) 기현(祁縣)(지금의 산서성(山西省) 기현(祁縣)) 태생이다. 후에 부친인 왕처렴(王處廉)을 따라 포주(蒲州)(지금의 산서성 영제현(永濟縣))로 집을 옮김으로써 하동(河東)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말년의 관

직명에 따라 왕우승(王右丞)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부친과 조부가 모두 사마(司馬)직을 지냈고 그 역시 일생을 관사(官司)로 마쳤다.

장남이었던 왕유는 어려서(10세 전) 부친을 여의고 모친, 동생들과 함께 다소 청빈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는데, 32세 때는 아내와 사별하고 이후 평생을 혼자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이유에는 그가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 모친 최씨(崔氏)는 일생동안 대조선사(大照禪師)⁶⁾를 사사한 불교신자였고 왕유 역시 자신의 자를 「유마경(維摩經)」에서 보이는 주인공 유마거사(維摩居士)의 이름을 빌어 사용할 만큼 독실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또, 그의 나이 30세에 이미 대천복사(大薦福寺) 선사(禪師) 도광(道光)에게 화엄종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형제 모두 오로지 부처님을 받드는데 뜻을 두어 음식은 향내나는 채소를 피하였고 무늬 있는 화려한 옷은 삼가하였다(兄弟皆篤志奉佛 食不衣不文綵)”는 「당서(唐書)」의 구절을 보면, 집안 전체가 불가에 귀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훗날 그의 예술 창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 된다.⁷⁾

“그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다재다능했으며, 아홉 살 때 이미 글을 지을 줄 알았다(…九歲知屬辭)”는 「구당서(舊唐書) 왕유편(王維傳)」 기록에서처럼 그의 문학적 재능은 탁월하였고 그림과 음악에도 정통하여 그 명성이 일대를 풍미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시정(詩情)이 넘치는 산수화는 그를 훗날 남종화(南宗畫)의 창시자로 만들었다.

개원(開元)9년(721년) 봄, 22세의 나이로 왕유는 진사에 급제하여 태악승(太樂丞)을 시작으로 상서우승(尙書右丞)까지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관직을 맡았다. 그 중 모두 2번의 좌천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전후로 은일한 기록이 남아있다. 제주(濟州)로 좌천되었다가 장안으로 되돌아온 직전(726년)과 개원 22년(734년), 두 차례 송산(崇山)에서 은일했던 기록이 있으며 개원 29년(741년)에는 종남산(終南山)에서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개원말년(742년) 그의 나이 43세 전후로는 남전현(藍田縣)의 망천(鵬川)에서 주로 은일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왕유는 안록산의 난이 일어난 당시(755년) 반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굴복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그는 말년에 권력의 뒷

자리에서 이루지 못할 치국평천하의 꿈만을 품은 채 철저한 반관반은(半官半隱)의 삶을 살았다. 그 결과 오늘날 그가 평가받고 있는 것은 그가 남긴 예술작품들로, 이는 그가 은일생활과 관직생활을 동시에 해나가야 했던 내재적 모순에 대한 갈등과 평생 홀로 살아야 했던 고독감, 그리고 은일하는 동안 접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이 평생 귀의했던 불교 사상과 그 시대를 풍미했던 도교사상이 서로 융합되어 나타나게 된 하나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III. 왕유의 자연시와 자연미

왕유는 평생동안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마음껏 펼칠 수는 없었지만, 그의 탁월한 문예활동은 오히려 그를 후세에까지 훌륭한 예술가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문예작품 가운데에서도 그의 시(詩)는 동시대 인물들이었던 이백(李白, 701년-762년), 두보(杜甫, 712년-770년)와 나란히 견줄 만큼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⁸⁾ 게다가 그가 자연 속 경물(景物)을 주된 시제(詩題)로 삼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자연’에서 ‘아름다움(美)’을 찾는 것은 육조이후부터이고 여기에는 불도가 사상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반론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적어도 그 이후부터 자연은 그것이 가지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확립하게 된다(入谷仙介, 1976: 528). 곧, 자연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예술가들에게 훌륭한 소재로 환영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자연은 은일생활과 불가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왕유에게 아주 중요한 사유대상이 되어 많은 시작(詩作)을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결과 왕유의 시는 당대의 걸출한 시인들과 비교해 자연 풍경의 묘사에 특히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도연명(陶淵明, 365년-427년), 사령운(謝靈運, 385년-433년)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자연시인(自然詩人)으로 손꼽힌다.⁹⁾

1. 사령운의 자연시

사령운은 자연을 보다 맑고 신선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눈에 직접 보이는 경물(景物)들을 진실되고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마음속의 감흥을 토로하는데, 그 표현에

는 결코 장식적이거나 수식됨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任曉紅, 1994: 164-165).

晚出西射堂	해질 무렵 집 서쪽에 나아가다
連陲翠嶺深沈	병풍처럼 들린 첩첩 산봉우리.
靑翠杳深沈	푸른 산색 아득히 짙어만 가네.
曉霜楓葉丹	새벽 서리에 단풍 붉게 물들고
夕照嵐氣陰	노을은 산기운에 기우는구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는 것은 이미 괘박(郭璞)⁹⁾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는 자연을 대부분 객관적인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선이 거주하는 곳, 인간 세계와는 또 다른 영적 세계로 간주하였다(入谷仙介, 1976: 529). 일반적으로 사령은 이전의 사람들은 자연 경물에 대하여 그것을 바라는 보고 있지만 인간의 정신 세계가 자연경물과 서로 잘 융합되지 못한 상태로, 대상의 직접적인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감상하기보다는 상(象) 외적인 부분에 대하여 더욱 집착하고 관(觀)하는 경향이 짙었다. 즉, 이 시기의 산수는 예술작품을 위한 소재로 이용되었지만 객관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는 것이 아니라 사의(寫意)에 주로 치중하면서 산수는 단지 신비로움을 간직한 비흥(比興)¹⁰⁾의 매개체로 이용되었던 것이다(袁行滿, 1994: 73-74). 이에 비하여 사령운은 보다 정밀하고 사실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묘사함으로써 실제 자연의 모습을 충분히 관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별천지를 실제 산수에서 찾으려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바램을 해결하려는 듯 평생토록 자연의 기이한 의취를 좇아 수많은 산행을 하기도 하였다. 즉, 사령운은 객관적인 자연의미를 발견하고 현실세계의 고뇌를 잊을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자연에서 찾음으로써, 그에게 자연은 더 이상 인간과 융합될 수 없는 별개의 산물이 아니며 자연이 곧 그의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 도연명의 자연시

그에 비해 도연명에게서 보이는 자연은 도의 완성을 지향한 사의(寫意)적인 부분이 짙게 가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연명을 전원시인(田園詩人)이라 일컫지만 작품 속에 자연의 경치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도연명의 자연시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소박한 마음으로 자신을 자연에게 의탁함으로써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 소지주(小地主)로써 여생을 보내야 하는 그의 처지는 도가 사상과 융합되어 속세에 초연하고 자연에 귀의하는 방식으로 승화된다.

飲酒 5首	음주 5수
結廬在人境	인가에 초막 엮었는데,
而無車馬喧	거마의 시끄러움이 없더라.
問君何能爾	그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길래,
心遠地自偏	마음 멀리하면 땅은 저절로 외지게 된다네
采菊東籬下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꺾다가,
悠然見南山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네.
山氣日夕佳	산 기운 석양에 아름답고
飛鳥相與還	나는 새는 더불어 돌아오네.
此中有真意	이 가운데 참뜻 있나니.
欲辨已忘言	그 뜻 밝히려다 말 이미 잊었네.

여기에서는 사령운이 추구했던 화려하고 광대한 산수 환경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인가(人家) 속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평온한 것은 모두 도를 향한 '마음'에 기인한 것이고 유연히 바라보는 남산은 비록 눈앞에 드러나는 광대한 자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신을 자연에 귀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도연명이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소 받을 갈 것을 제창하고 자신이 직접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그의 시 도화원시병기(桃花源詩并記)에서는 "소박함을 품고 참됨을 머금음(抱朴含眞)"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있으며 "서로 도와 농사에 애쓰고, 해지면 쉼 곳을 찾아가네(相命肆農耕 日入從所憩)," "봄 누에 쳐서 비단실 거두고, 가을 추수에 세금 없네(春蠶收長絲 秋熟靡王稅)" 등의 구절에서는 노동에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자급자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이상사회를 엿볼 수 있게 한다(袁行滿, 1994: 46-67).

도연명은 자연스러운 자연 본래의 모습을 그리는데 뛰어났고 그것에 담긴 소박함이 곧 아름다움 그 자체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는 사령운이 보는 자연미와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3 왕유의 자연시

그렇다면, 왕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왕유가 도연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袁行霈 1994: 74),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며 실제로 왕유는 사령운의 자연미와 도연명의 전원미 모두를 함께 따르고 있다(入谷仙介, 1976: 528, 김덕수, 1986: 132).

「망천집(綱川集)」 가운데 난가뢰(欒家瀨)의 경우를 살펴보자.

欒家瀨	난가의 여울
颯颯秋雨中	스산한 바람에 가을비는 내리는데
淺淺石溜瀉	쨍쨍 산석에 물은 여울져 흐르며
既波自相激	물방울 튀기어 서로 부딪히며
白鷺復下	백로는 놀라 날아올랐다 다시 내려온다.

이 경우는 자연에 귀의하는 작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난가에 있는 여울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듯한 객관적인 자연묘사는 오히려 사령운의 자연시의 모습과 흡사하다. 또, 「망천집」이 망천별업 주변의 특징적인 경관을 모아놓은 것임을 고려해볼 때, 이 난가의 여울은 그 경관이 매우 수려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왕유가 내면적인 무언가를 시에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소재를 선택한 것보다는 자연의 순수하고 객관적인미를 읊기 위해 시제(詩題)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金屑泉	금가루샘
日飲金屑泉	날마다 금설천 샘물을 마시니
少當千餘歲	적어도 천여 년은 살겠네
翠以翔文綺	푸른빛 수레 타고 용을 물고 날아올라
羽節朝玉帝	깃털을 휘날리며 옥황상제를 알현할 수 있으리라

무병장수를 할 만큼 좋은 약수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금설천(金屑泉) 역시 망천별업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경관이다. 이 시에서 왕유는 신선의 수레를 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용의 도움으로 하느님을 만나기를 희망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망천별업을 하나의 신비로운 별천지로 여기고 있다는 일말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 역시 자연을 종교적 측면의 유토피아로 간주하고 있는 사령운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왕유에게 있어 자연은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의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초인적인 세계, 신비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사회에 풍미

했던 도가 자연주의와도 일맥상통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그가 도연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입장은 바로 자연 속에 자신을 포함하여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배경을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속에는 도연명과 공통적으로 정치적 권력에서 단절된 전원 속의 자유로움을 담고 있다.

山居秋暝	산장의 가을 저녁녘
空山新雨後	텅 비어 허전한 산에 막 새로이 비 내린 뒤
天氣晚來秋	어스름 저녁이라 가을 기운 물씬 풍긴다
明月松間照	이즈음 밝은 달빛은 숲 사이로 비쳐 오고
清泉石上流	맑은 샘물은 산석(山石) 위로 흐른다
竹喧澗澗女	대숲 떠들썩하며 빨래 나온 여인들 돌아가고
蓮動下漁舟	연잎 흔들거리며 고기잡이배 내려가네
隨意春芳歇	마음대로 향기로운 봄풀이 다 시들어 버려도
王孫自可留	왕손은 의연히 산중에 머무랄 수 있으리라

한편,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불교적 색채이다. 앞서 왕유의 생애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평소에 불교에 귀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불가적 사유는 자연산수와 전원생활의 묘사에서 선(禪)적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으며 작품 곳곳에는 주로 '공(空)'과 '적(寂)'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주로 이러한 경지를 인간속세의 삶에서보다는 자신을 텅 빈 산의 적막한 숲 속에 맡김으로써 대자연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새벽 염불소리에 숲은 아직 날 밝지 않았고, 한밤의 참선에 산은 더욱 적막하다(朝梵林未曙 夜禪山再寂 [藍田山石門精舍]),” “밤중에 앉아 있노라니 텅 빈 숲 속은 적막하고, 솔바람은 바로 가을이로구나(夜坐空林寂 松風直似秋 [過感化寺靈巖上人山院]),” “적막한 사립문에는 사람이 오지 않아, 텅 빈 숲에서 홀로 흰구름과 함께 기약할 뿐(寂寞寨門人不到 空林獨與白雲期 [早秋山中作])” 등의 시구에서는 완전한 공적(空寂)의 경지가 드러나 보인다(袁行霈, 1994: 90-91).

결과적으로 왕유는 자연을 객관적인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체를 지키고 지극히 객관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생활 속의 전원미를 함께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고도의 예술적 완성을 느끼게 하는 자연시를 만들어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入谷仙介, 1976: 577).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자연이라는 대상을 시제로 삼게 된 데에는 불가의 영향이 크네, 그에게 있어 자연은 곧 속세를 떠난 선경(禪境)이자 이상향이

있던 것이다. 이처럼 형이상학적인 관점으로 귀결되는 왕유의 자연미는 그가 남긴 문예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종 산수화의 시종(始宗)자로서도 평가받고 있는 왕유의 화가적 입지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연을 재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화학비결(畫學秘訣) 산수결(山水訣)」에서 볼 수 있는 “무릇 그림의 법도 가운데는 수목이 가장 으뜸인데 그것은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된다(夫畫道之中山水最爲上 肇自然之性)”는 구절은 왕유가 자연의 본질적인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왕유의 산수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인 도가적 불가적 정취는 이미 주지하는 바로, 이는 자연시에서 보이는 정취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화가로서 인정받게 하는 것은 그가 부지불식간에 시와 그림을 결합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송대의 소식(蘇軾)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졌는데, “마힐의 시를 맛보면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마힐의 그림을 보면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味摩詰之詩, 詩中有畫, 觀摩詰之畫, 畫中有詩)”고 하면서 왕유의 그림을 단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유명한 구절은 곧 왕유의 회화에 시와 같은 의경(意景)¹³⁾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자연을 예술작품으로 재현함에 있어 유한한 형체를 넘어서고 그 내재된 정취까지 표현하고자 했던 왕유의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왕유의 자연미와 그것의 재현방식을 통해서 본 망천별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IV. 왕유의 망천별업

종남산 기슭, 남전현(藍田縣)에서 서남쪽으로 약 20리 떨어져 있는 망천(鞏川)에 위치해 있는 망천별업은 본래 초당(初唐) 시인인 송지문(宋之問)의 소유였던 것을 개원말년(742년)을 전후로 왕유가 구입하여 모친을 섬기며 은일했던 곳이다. 또, 천보(天寶)9년(748년)에 그의 모친이 죽자, 그는 모친의 명복을 위해 이곳에 청원사(靑源寺)라 불리는 사원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는 왕유가 망천별업을 소유하고 조영하고 변화시킨 개략적인 과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망천별업

의 조경사적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형태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까닭에(김용표, 1996: 344-345), 이곳의 제반사항은 왕유가 남긴 시작(詩作)과 망천별업을 모방한 망천도(鞏川圖)를 참고로 하여 그 분위기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왕유는 생전에 자신이 살던 망천별업의 풍경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지만,¹²⁾ 지금은 현존하고 있지는 않으며(侯迺慧, 1990: 83) 대신 후대의 화가들이 그의 고화(古畫)를 본떠 다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그들이 그린 망천도는 왕유의 그림을 방작(倣作)한 것이 대부분이며,¹³⁾ 실제로 남겨져 있는 작품들을 비교해보면 그 형태나 구도는 거의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한다면 시대와 개인마다 달라지는 화법(畫法)과 세부기교로, 이런 것은 망천별업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는 거의 상관없는 요소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주로 왕유가 망천별업의 주요 경관 20곳을 선정하여 노래한 「망천집」을 중심으로 당채(唐逮),¹⁴⁾ 곽충서(郭忠恕),¹⁵⁾ 남기(南琦)¹⁶⁾가 그린 임왕유망천도(臨王維鞏川圖), 그리고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망천별업의 입지와 경관요소를 살펴보고 나아가 왕유에게 있어 망천별업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 공간이었는지 유추해보고자 한다.

1. 망천별업의 입지조건

망천(鞏川)은 현재 섬서성 남전현에 있으며 물이 바퀴모양을 하고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남전현은 종남산 동북쪽 약 7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며 장안성 역시 그 서북쪽에 있다.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산수는 가늘고 세밀한 무늬가 많아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굴곡 또한 많아 그 일대의 지세가 비교적 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망천별업은 현재 유적지로서만 남겨져 있을 뿐 구체적인 형태는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몇몇 자료를 통해서만이 그 일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권 53에는 망천별업 일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망천 계곡의 물은 남전현의 서쪽 8리에 있다. 이 계

곡은 여산(廬山)과 남전산(藍田山)이 서로 접하고 있는 곳이다. 산이 좁고 지세가 험하며 돌을 뚫어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약 30리가 되고 천성동(千聖洞), 세수동(細水洞), 석수동(錫水洞)의 모든 물이 모인다. 차바퀴가 돌아가는 것같이 물줄기가 도는 것이 모두 20리이다. 이곳을 지나면, 곧 시야가 트이면서 임야를 만나게 된다. 그곳을 거치면 물은 또 서북쪽을 향하여 휘감기는데, 이곳 역시 망천이라 일컫는다.”

「장안지(長安志)」권 16에서는 “망천 계곡은 남전현의 남쪽 20리에 있다”, “망천 계곡의 물은 남쪽으로부터 나오며 북쪽으로는 파수(瀉水)를 끌어들이다”고 기록하고 있다(陳鐵民, 1997: 413-414).

또, 1918년 일본에서 간행된 지지(地誌)에서는 이곳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入谷仙介, 1976: 584-585). “... 수원(水源)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유역(流域) 토질이 황토라 하천의 바닥은 진흙이 가득하고 유수(流水)는 심히 혼탁하다. 대개 이곳(藍田)의 물은 맑지만 한번 망천과 합하게 되면 매우 탁해진다. 강의 깊이는 알아서 무릎에도 못 미치고 강의 밑바닥은 모래석이 대부분이며 돌을 놓아 건널 수 있다...”

문헌을 통해 본 망천별업은 기본적으로 기이한 천연 산수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바위처럼 휘감아 도는 망천의 물줄기를 한참동안 지나서야 별업이 시작되며 주변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울창한 수림과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산, 그리고 계곡, 못 등 원림에 필요한 주요요소들이 천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한편, 「남전현지(藍田縣志) 토지지(土地志)」에는 망천별업에서 왕유가 보냈던 생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대개 산이 둘러싸인 이곳에 거처하면서 기질이 곧고 검소함을 녀석함과 바꾸고 재물을 중시하지 않는 까닭에 소박함과 편안함을 구하고 교훈을 좇는다. 또, 사(士, 즉, 양유)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쟁기질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그 경작하는 힘을 직물 짜는데 까지 이용하였다.”(侯迺謙, 1990: 84-85).

당대(唐代)에 나타나고 있는 문인 원림에는 그 입지 조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당시 수도였던 장안성 내에 위치하면서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일종의 주택정원이라 할 수 있는 성시사원(城市私園)이며 다른 하나는 장안성을 벗어나 향촌지역의 수려한 산수에 별도로 원림을 조성하는 교외별서원(郊外別墅園)으로 나뉘어진다. 이 교외별서원에는 그 규모나 위치에 따라 산장(山莊), 별업(別業), 산정(山亭), 수정(水亭), 지정(池亭), 전거(田居), 초당(草堂)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周維權, 1990: 75-81), 망천별업의 경우에는 관직을 버리지 않은 문사가 머물면서 장안 주변의 자연풍경이 수려한 향촌에 머물면서 은일은 물론, 농업 경제 활동을 겸비한 일종의 전형적인 장원(莊園)에 의거한 별서원림이라 할 수 있다.

2. 망천별업의 경관요소

왕유는 망천별업에서 머무는 동안 친구 배적(裴迪)¹⁷⁾과 함께 화작(和作)한 시를 모아 「망천집」¹⁸⁾을 엮었는데, 이 시집은 왕유가 선정한 20개의 주요경관을 소재로 한 시작(詩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전후관계와 순서를 참고해 보면, 이 20경은 망천별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들이며 이동경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周維權, 1990: 81).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동선을 따라 각각의 경관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망천계곡을 들어서면, 소나무가 울창하게 수림을 이루고 있는 언덕 ‘화자강’과 성벽 등의 유적이 남아있는 평평한 ‘맹성요(孟城坳)’¹⁹⁾가 나타나게 된다. 왕유의 시 맹성요에 화답한 배적의 시 “고성아래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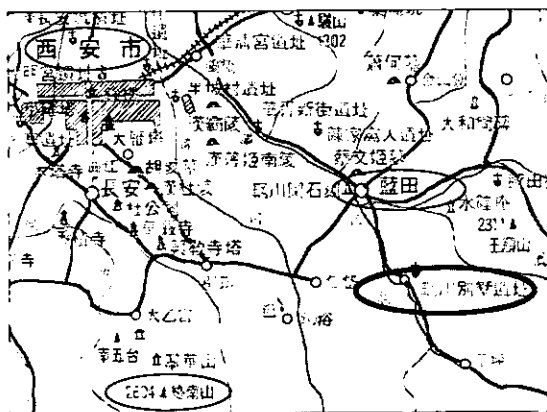


그림 1. 망천별업 위치도

자료: 동국대학교(1990) 중국대륙의 문화 1 고도장안. 서울 : 한국언론자료간행회. pp. 236-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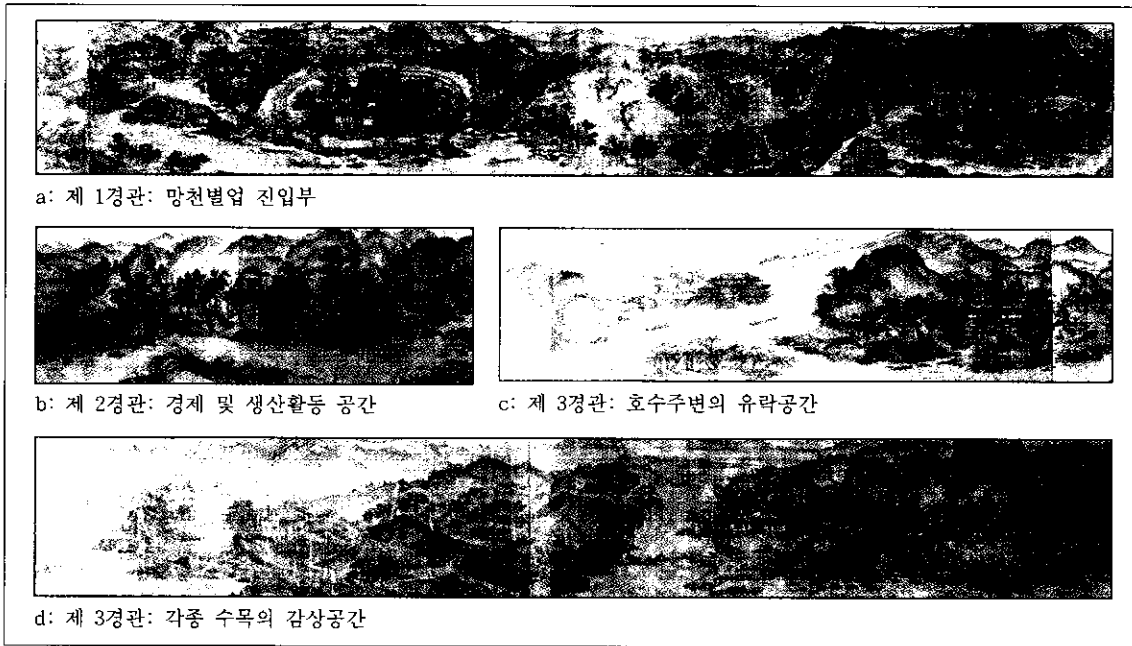


그림 2. 임왕유망천도(臨王維綱川圖) 전부분

출처: 唐逮 作, 至正 2年(1342) (348×509.1cm), 絹本著色, 王維(1985) 文人畫粹編 - 中國篇, 東京: 中央公論社, pp. 25-27.



그림 3. 망천 일대 경관

출처: 南琦 作, 臨王維綱川圖, (28×483.1cm) 絹本著色 部分, 王維(1985) 文人畫粹編 - 中國篇, 東京: 中央公論社, p. 36.



그림 4. 근죽령 일대 경관

출처: 南琦 作, 臨王維綱川圖, (298×468.1cm) 絹本著色 部分, 王維(1985) 文人畫粹編 - 中國篇, 東京: 中央公論社, p. 22.



그림 5. 녹채 주변 경관

출처: 唐逮 作, 至正 2年(1342), 臨王維綱川圖 (348×509cm) 絹本著色 部分, 王維(1985) 文人畫粹編 - 中國篇, 東京: 中央公論社, p. 23.



그림 6. 의호 일대 경관

출처: 郭忠恕 作, 臨王維綱川圖, (299×480.7cm) 絹本著色 部分, 王維(1985) 文人畫粹編 - 中國篇, 東京: 中央公論社, p. 66.

오두막을 만들어/때때로 고성 위를 오른다/고성은 예전에는 아니었으나/지금은 사람들이 스스로 왕래하네(結壑古城下 時登古城上 古城非尋昔 今人自來往)"와 「남전현지(藍田縣志)」에 기록되어 있는 "남조의 송무제(宋武帝)가 성을 건축한 바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맹성은 본래 고성(古城)이었음을 알 수 있다(陳鐵民, 1997: 414). 화자언덕은 지세가 높음에 따라 멀리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산맥 아래 하나의 건축물이 있으며 맹성보다 앞부분에 있다(侯迺慧, 1990: 83) (그림 2a 참조).

이어 살구나무 일종의 문행(文杏)으로 대들보를 올리고 지붕을 향기 나는 향모(香茅)를 덮은 '문행관(文杏館)'이라는 청당(廳堂)이 전망 좋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이야말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야를 먼 곳까지 이르게 하여 유한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체득하게 하는 의도가 실천되어 나타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문행관은 원림 내의 주요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남쪽에는 산봉우리, 그리고 북쪽에는 호수가 펼쳐 있어서(...南嶺與北湖 前看復廻顯... 문행관(文杏館) 배적作) 망천별업의 공간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 문행관(文杏館)을 지나면 작은 대나무가 우거져 고개를 휘감아 도는 물에 푸른빛이 비쳐 어른거리고 작은 산길에 나있는 '근죽령(斤竹嶺)'(明流紆且直 綠篠密復深 逕通山路 行歌望荇岑 근죽령(斤竹嶺) 배적作)이라는 고개를 넘게 되어 있어 하나의 공간적 전이가 이루어진다(그림 4 참조).

다음으로는 망천별업이 가지는 생산적 공간이 나타나는데, 먼저 나무 울타리로 구역을 설정, 경계성은 물론 아름다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모란을 식재해 놓은 '모란채(木蘭寨)'가 있으며 그 옆으로는 향 짙은 붉은 열매의 수유나무가 마치 꽃이 만발한 것과 같은 운치를 이루며 물가 근처에 가득 우거져 있는 '수유반(菜蕒泮)'이 있다. 이 공간을 지나고 뽕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이끼 푸른 오솔길 '궁괴막(宮槐陌)'을 지나면, 나무로 울타리를 짜서 그 가운데 사슴을 키웠던 '녹채(鹿柴)'가 나타난다. 이 공간은 뒤이어 나타나게 될 동적 공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녹채 뒤로는 의호(飲湖)라는 호수를 중심으로 확 트인 새로운 경관이 나타나게 된다. 그곳에는 우선 의호

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임호정(臨湖亭)'이 있고 호수의 북 남쪽에는 작은 산구릉 '북타(北垞)', '남타(南垞)'가 있는데, 그곳에는 각각 건물이 한 채씩 세워져 있으며 의호를 유람하는 배들을 정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임호정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버드나무 숲 '유랑(柳浪)'이 있어 수면 위로 다양한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임호정 주변에는 이 외에도 수면은 비교적 평탄하나 물살이 센 여울 '난가뢰(欒家瀨)'와 금빛의 샘물이 솟아나는 '금설천(金屑泉)', 흰돌이 드문드문 물 속에 잠겨 있는 '백석탄(白石灘)'이 호수 주변의 경관을 이루고 있다. 이 호수 일대는 망천별업 가운데 가장 화려하며 자연과 더불어 노니는 가장 적극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이 동적인 공간을 지나면 대숲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조용한 공간에 우아한 형태의 건축물 '죽리관(竹里館)'이 나타나는데, 이곳은 호수의 활기 있는 기운과는 대조적으로 적막하고 공적인 특징을 가진다. 왕유는 "그윽한 대숲 속에 홀로 앉아/거문고 타다 또 길게 휘파람 부는데/깊은 숲 속이라 사람들 알지 못하고/밝은 달빛만 다가와 비추어 준다(獨坐幽篁裡 彈琴復長嘯 深林人不知 明月來相照 죽리관(竹里館))"라고 읊으면서 이 공간을 담백하고 청정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죽리관을 뒤로하고 목련꽃이 어지럽게 피는 언덕 '신이오(辛夷塢)'를 지나면, 망천별업의 마지막 공간인 옷나무 동산 '칠원(漆園)'과 산초나무 동산 '초원(椒園)'으로 마무리된다.

「망천집」에서 읊고 있는 20경관을 통해 망천별업의 전반적인 공간구성은 전반적으로 구성요소의 대부분은 수려한 자연경관에서 천연적으로 비롯된 것이며 그 속에 건축물과 수목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짜임새 있는 공간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망천별업은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경관의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먼저 망천이 바뀌어처럼 돌아가는 원림의 입구를 시작으로 수려한 산수에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 있는 제 1경관, 근죽령을 넘으면 경제작물을 키우는 등의 별업의 생산을 담당하는 제 2경관, 이 별업의 동적 유락공간이라 할 수 있는 의호 일대의 제 3경관, 마지막으로 공적(空寂)한 분위기의 죽리관과 함께 다양한 수목을 군식해 놓은 제 4경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3. 왕유의 자연미와 망천별업

이미 3장에서 왕유는 객관적인 자연, 소박한 전원 속에서의 자연, 그리고 불가사상이 바탕이 되어 나타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망천별업을 두고 남긴 왕유의 작품들을 보면, “꽤나 무는 호젓이 좁은 길을 그늘 지워 가리고/어둡고 습한 웅달엔 온통 푸른 이끼 무성하다(仄徑蔭宮槐 幽陰多綠苔... 궁괴맥(宮槐陌))”이라던지, “나뉘어진 줄마다 그루그루 이어진 빛 고운 나무들/맑디맑은 잔물결 속으로 거꾸로 비쳐 들었나니(分行接綺樹 倒影入清... 유랑(柳浪)), “나뭇가지 끝마다 연꽃인 양 고운 목련꽃/깊은 산 속에서 그 붉은 봉오릴 터뜨렸는데(木末芙蓉花 山中發紅... 신이오(辛夷塢))” 등에서는 경관의 요소가 가지는 미를 담담하게 그림을 그리듯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그는 흰자갈이 가득 깔린 개울가(백석탄)에서 빨래하고 있는 아낙네를 보며 전원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이곳 망천별업을 종교적 유토피아로 간주하고 있다.

자연을 유토피아로 바라보는 견해는 위진남북조 전기에 시작되었지만, 후기에 들어가면서 인공적인 자연이 유락(遊樂)의 대상이 되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을 초자연적인 신비경(神祕境)으로 끌어들이는 입장은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었다(入谷仙介, 1976: 616-617). 이러한 측면에서, 망천별업은 왕유의 불교적 신앙 세계와 결합되면서 이상화된 자연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금가루샘(金屑泉)’을 묘사한 시에서 망천별업을 하나의 이상세계로 여기고 있었음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무엇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은 바로 의호(欽湖)의 임호정 주변이다. “쾌속의 가벼운 배로 귀한 손님 맞이하여/한가로이 드넓은 호수 위로 건너질러 와/창가에서 술단지 마주하고 술을 마실제/사방으로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히 피어있네(輕迎上客 悠悠湖上來 當軒對樽酒 四面芙蓉開 임호정(臨湖亭))”에서 우리는 친구 배적과 산승(山僧)을 동행하여 배를 타고 술을 마시고 거문고를 타면서 노니는데, 주변에는 연꽃이 가득하고 지는 햇살에 호수물이 금빛으로 물들게 되면 마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入谷仙介, 1976: 623). 이러한 화려한 유토피아적 세계는 내심의 고독을 채득하고 삶을 초

탈하게만 할 것 같은 공적(空寂)의 공간인 ‘죽리관’까지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문행관을 비롯하여 임호정, 죽리관 등의 건축물들에서의 경관 체험은 감상자들로 하여금 의경의 미를 유도하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왕유가 보았던 자연미는 크게 대상의 객관적인 요소를 통한 아름다움(사령운풍)과 자연에 귀의하여 유연자득 하고픈 자신의 심정을 전원의 소박한 아름다움에서 찾는(도연명풍) 두 가지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자신이 평생토록 귀의한 ‘불교’는 이러한 자연을 종교적 이상세계, 즉 불가의 극락정토로 승화시키는 바탕이 되고 있었다.

그가 말년까지 기거하였던 망천별업은 무엇보다 소유자에게 은일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된다. 속세와 탈속이라는 이중적인 생활을 버릴 수 없었던 왕유에게 이곳은 그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산수미, 소박한 전원미와 함께 종교적 이상향까지 왕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미가 모두 구현될 수 있었던 곳이었다.

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망천별업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당시 문인들에게 유행하였던 사의적 원림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망천별업은 그 위치로 보면 장안성 근교에 위치하여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성시사원(城市私園)과는 다른 교외별서원(郊外別墅園)이며 구성요소의 성격으로 보면 천연산수가 그 주된 경관을 이루고 있는 자연산수원(自然山水園)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원림이다.

게다가, 이곳은 평생 관직에 몸담은 왕유가 장안 주변에 있는 수려한 환경을 찾아 그곳에 머물면서 몸을 은일하고, 때로는 조정에 드나들기도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농업 경제 활동을 겸비할 수 있는 일종의 전형적인 장원(莊園)에 의거한 별서원림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주거지를 겸하면서 천연원림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진입부분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경관, 원림에서 가장 공간적 위치가 풍부한 세 번째 경관, 그리고 각종 수목을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경관

까지 총 4개의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망천별업이 은일의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이곳은 세속을 벗어나 또 다른 별천지에 몸담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는 곧 왕유 만이 가지는 불교적 유토피어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불교의 사상은 중당 이후 문인들에게 선(禪)적 취향으로 이해되기도 하였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의 깊이는 훗날 사가정원의 핵심인 “경외지경(景外之景)”, “상외지상(象外之象)”의 경지를 구현하는 초석을 마련한 셈이며 특히 이 시기 이후 전개되는 다양한 사가원림의 전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주 1. 갈로(葛路)는 산수(자연)를 인식하게 된 배경을 인류의 미에 대한 인식이 일정한 단계까지 발전된 자연스러운 반영으로 본다(葛路, 1989: 100-105). 비록 그의 의견대로 이와 같은 배경이 산수에 대한 관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상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뒷받침되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 주 2. 사령은(謝靈運, 385년-433년), 남조(南朝) 송(宋)의 진군(陳郡) 양하인(陽夏人), 태위참군(太尉參軍), 영가태수(永嘉太守), 시중(侍中) 등을 지내고 특히 문제(文帝)의 깊은 아낌을 받았으나 정사(政事)에는 관심이 없고 은사(隱士)들과 어울려 산수에서 노닐며 시부(詩賦)를 즐겼다. 그는 유(儒), 불(佛), 도(道)의 3교에 통하고 특히 불리(佛理)에 밝아 밤낮으로 불리(佛)를 연구하고 노유(老)를 말하면서도 권세와 영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조귀족(南朝貴族)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인물이다(葛路, 1989: 101).
- 주 3. 종병(宗炳, 375년-443년), 남조(南朝) 송(宋)의 은일(隱逸) 화가이자 음악가. 자는 소문(少文), 금(琴)과 서예에 능하였고 현리(玄理)에 정심(精深)하였는데 항상 산수를 유람하여 한번 곧 돌아오는 것도 잊었다고 한다. 일찍이 여산(廬山)에 들어가 승(僧) 혜원(慧遠)에게 배우고 후에는 강릉(江陵)의 3호(湖)를 집으로 삼아 한거무사(閑居無事)로써 스스로를 즐겼던 인물이다(葛路, 1989: 105).
- 주 4. '莊'이란 원래 別莊 즉 건물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園'은 화분 과수 채소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하지만 '장'은 그것을 경제적으로 지탱해줄 수 있는 '園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莊園 莊田 등의 용어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휴식과 오락의 장이 되어있던 '장'의 기능은 점차 이 '원산'의 경영으로 그 역할이 옮겨지게 되면서 장원 장진도 대토지의 소유경영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바뀌게 되고 송대에 들어서는 완전한 토지제도도 자리잡게 된다(신성갑, 1989: 16).
- 주 5. 대조선사(大照禪師): 당대 선종 가운데 북종(北宗)의 비

종(秘宗)인 신수(神秀)의 제자.

- 주 6. 대표적으로 그의 말년작인 탄백발(歎白髮)을 보면, “일생동안 마음 씀인 일들이 실로 그 얼마였던가 /이제 공문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또 어디서 해탈할 수 있으리”라는 구절이 보인다.
- 주 7. 일반적으로 시선(詩仙)인 이백의 시에는 도가적, 낭만적, 향락적, 표일호방(飄逸豪放)적인 풍격이 느껴지며 시성(詩聲)인 두보의 시에는 유가적이면서 사실적이며 비장미가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 시불(詩佛)인 왕유의 시에는 불교적이고 상징적이며 청일한아(淸逸閑雅)하고 맑고 담백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김재승, 1979: 251; 최창연, 1990: 27).
- 주 8.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사령은은 산수시인(山水詩人), 도연명은 전원시인(田園詩人)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왕유의 경우, 산수뿐만 아니라 전원을 소재로 한 시작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산수'와 '전원'을 모두 '자연'의 범주 속에 넣어 논의하기로 한다.
- 주 9. 곽박(郭璞, 276년-324년), 중국 동진(東晉)의 문인. 허둥(河東) 출신. 자는 경순(景純), 경학(經學), 시문(詩文), 역수(易數) 등에 뛰어났고 박학의 재능을 인정받아 원제(元帝)에 의해 상서랑(尙書郎)으로 임명되었다. 시인으로서도 동진 제일의 대가로, 대표작은 유선시(遊仙詩) 14수 중 7수가 (문선(文選)에 수록되어 있다. 곽박의 시는 단순히 이미지로서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선화(仙化)시키려고 하는 도교적(道敎的) 선화사상이 뒷받침되어 있다. 즉, 엄세적 자연주의에 입각하여 속세에 초연하였고, 322년 중신(重臣) 왕돈(王敦)의 반란에 반대하여 살해되었다(학원출판공사사전편찬국, 1993: 349).
- 주 10. 시경(詩經)의 작법(作法)에서 유래된 부(賦), 비(比), 흥(興) 가운데 비와 흥을 말한다. 직접적인 묘사방법을 지칭하는 부에 비해 비유(比)의 방법인 비와 암시의 방법인 흥은 시적 정감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부, 비, 흥은 중국 전통 문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작법으로 알려져 있다(이수용, 1993: 31-34).
- 주 11. 의경(意景)은 유한한 대상은 뛰어넘어 무한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경계로, 중국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즉, 의경은 예술가가 자연경물을 관찰한 다음 생각을 옮겨 묘(妙)를 얻고 또한 정(情)과 경(景)을 서로 융합시켜서 얻어낸 우미(優美)한 경계인 것이다(葉 飢, 1994: 219-221, 葛路, 1989: 219).
- 주 12. 송대(宋代)의 시인 황산곡(黃山谷)의 문집에 “왕유는 스스로 망천도를 그렸다고 하였으며 필묵은 가히 미묘한데, 세상에는 이 작품이 존재하고 있다(王摩詰自作詩詞]必皆可謂造微入妙 然世有爾本)”라는 기록이 있다(김재승, 1979: 258).
- 주 13. 망천별업을 방모(傲模), 임모(隨模)한 인물들로는 곽충서(郭忠恕), 당체(唐遼), 관세운(關世運), 문징명(文徵明), 상기(商琦), 송욱(宋旭), 조영양(趙令穰) 등이 있으며 곽세원(郭世元)은 모곽충서망천도(模郭忠恕瀟川[圖])라는 석판본을 남기고 있다.
- 주 14. 당체(唐遼, 1296년-1364년): 자는 자화(子華), 절강(浙

- 江)의 오흥인(吳興人), 유학(儒學)으로써 강좌(江左)에 이름이 있었으며 오강현령(吳江縣令)을 역임하였다. 산수에 능하였는데, 곽희(郭熙)와 조맹부(趙孟頫)를 배워 빛나고 그윽한 화취(詩趣)가 있었다고 한다. 흔히 원초(元初)의 이파파(李郭派)로 일컬어진다(葛路, 1989: 318).
- 주15. 광충서(郭忠恕 ?-977년): 중국 후주(後周) 북송(北宋) 초기의 학자이자 서화가. 자는 서선(恕先). 오대(五代)의 주(周)에 봉직하였고, 송대에는 국자주부(國子主簿)의 벼슬에 올랐다. 전서(篆書), 예서(隸書)에 뛰어나고 가옥, 누관(樓館) 등을 다루는 계화(界畫)에도 능했다고 한다(학원출판공사사전편찬국, 1993: 352).
- 주16. 남기(南琦): 중국원대(元代) 화가. 자는 덕부(德祐). 호는 수암(壽岩)이며 조주(曹州, 오늘날 산둥 지역)사람이다. 생졸년이 미상인데, 대략 14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0: 716).
- 주17. 배적(裴迪): 배십적(裴十迪). 관중(關中 : 지금의 섬서성 일대) 사람. 당대의 저명한 시인. 벼슬은 촉주자사(蜀州刺史)와 상서성랑(尙書省郎)을 지냈음. 왕유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일찍이 두 사람이 함께 중남산에 은거하기도 하였다. 나이는 왕유보다 열네다섯 살 아래임(박삼수, 1994: 55).
- 주18. 본 연구에서는 宋蜀本([王摩詰文集]), 述古堂本([王右丞集註]), 元本(劉須溪校本), 明十卷本([王摩詰集]), 奇字齊本([類箋唐王右丞集]), 頤本([唐王右丞詩集主說]), 凌本([王摩詰詩集]), [全唐詩]를 주요저본으로 삼은 陳鐵民의 [王維集校註]에 있는 망천집을 참고하였다.
- 주19. '요(坳)'는 산과 산 사이의 평지를 말한다(陳鐵民, 1997: 414).
2. 강관식 역(1989) 중국회화이론사. 葛路 中國繪畫理論史. 서울: 미진사.
3. 윤수영 역(1991) 미의 역정. 李翺厚 美的 歷程. 서울: 동문선.
4. 김용표(1996) 시와 그림. 불교와 도교의 만남 - 왕유 문학의 고향 승산과 중남산을 찾아. 현대문학 504: 330-347.
5. 김재승(1974) 왕유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6. 김종태(1984) 동양회화사상. 서울: 일지사.
7. 박삼수(1993) 시불 왕유의 시. 서울: 세계사.
8. 신성갑(1989) 당송변혁기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발행, "강과 중국사 III"). 서울: 지식산업사.
9. 강영순 외 역(1994) 중국시가예술연구 하. 袁行 中國詩歌藝術研究 下. 서울: 아세아문화사.
10. 서진희 역(1984) 중국예술에 있어서의 의경. 예술문화연구 제4집: 199-230.
11. 이병한(1976) 왕유시선. 서울: 민음사.
12. 이수용(1993) 중국문학개론. 서울: 대한고교과서주식회사.
13. 이충효(1984) 왕유연구 - 산수화사상의 지위와 평가.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4. 정창열 외(1984) 세계사연표. 서울: 역민사.
15. 동국대학교(1990) 중국대륙의 문화 1 고도 장안. 서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6. 학원출판공사사전편찬국(1993) 학원세계대백과사전 권 3. 서울: 학원출판공사.
17. 入谷仙介(1976) 王維研究. 東京: 創文社.
18. 俞劍華 編著(1973) 中國詩論類編 上. 北京: 中華書局.
19. 任曉紅(1994) 碑典中國園林. 北京: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20. 侯 慧(1990) 詩情與幽境 - 唐代文人的園林生活. 臺北: 東大圖書股份有限公司.
21. 周維權(1990) 中國古典園林史.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2. 陳鐵民 校主(1997) 王維集校主. 北京: 北京書局.
23. 王維-文人詩釋編 中國篇. 東京: 中央公論社.
24. 長安志. 新文豐業書集成新編 第96冊.
25. 讀史方輿紀要 卷 53. 新興書局.
26.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90) 中國大百科全書-美術. 上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인용문헌

1. 강길중 역(1994) 중국문화와 과거제도. 金 請 中國文化與科舉制度. 서울: 증문출판사.

원고접수: 2000년 10월 16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1년 3월 16일

2인 익명 심사필